

#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 메커니즘 분석: 씨족 정치를 중심으로

문성인\*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과정에서<br>상대적 박탈감 |
| II.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 V. 결론                           |
| III. 씨족 개념 및 키르기스스탄<br>씨족의 특성 |                                 |

## | 논문요약 |

키르기스스탄의 ‘혁명’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민주적’인가? 이미지 또는 프로파간다에 의해 ‘포장’되어 제시된 것이 아닌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과 이 지역의 결정적 요소인 ‘씨족’에 기초하여 이곳의 정치변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의 틀로 ‘정치 엘리트 생존’ 개념 중 부에노 데 메스키타(Bueno de Mesquita)의 ‘정치적 생존’ 개념을 제시하였고, 키르기스스탄 내각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내각에서의 권력 분배와 지도자가 자신의 핵심 지지층으로 내각을 지배하는 정도를 수량화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 서클 개념과 키르기스 인명록을 통해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지도자와 씨족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을 거어(Gurr)의 ‘상대적 박탈이론’ 개념에 기초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은 ‘씨족’에 기반하며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내각에서 (특히 ‘내부 서클’에서) 씨족들 간의 권력이 비슷하게(균등하게) 수렴될 때 씨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지도자에게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귀결되며, 이것이 심화될 경우 정치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통념인 ‘민주화’라는 부분만으로는 부족하였던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에 대해 ‘씨족’과 경험적 자료를 통한 검증으

\* 경희대학교 유럽어문학과 석사과정

로 더 큰 이해를 가지고 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씨족 정치’가 이곳에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주제어: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씨족, 씨족 정치, 상대적 박탈감

## I. 서론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소련을 구성하던 국가들은 각각 자신만의 길을 찾아 독립하였고, 독립한 국가들은 소련이 장악 및 지배한 지역에 새로운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민족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기대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독립’<sup>1)</sup>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해결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건설(state-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building)’이라는 근본적이고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후, 주권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주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곧바로 집중하였다. 하지만 주변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세계의 관심이 적었고, 더 나아가 투자를 유치할 만한 자원과 인력, 즉 ‘경쟁성’이 희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르기스스탄은 인접한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더 나아 보이는 소프트웨어”(강봉구 2009b)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의 국가들 가운데 모범적인 ‘민주적 시장경제’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비전과 경제적인 모델로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the Switzerland of Central Asia)’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정치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그리고 국제정치체제

1) 다른 구소련 지역과는 달리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으며, ‘연방 보전을 위한 전(全) 연방 국민투표’에서 연방의 해체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구자정 2011, 357-405).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은 친서방적 입장을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으로 발현되었다. 결국, 키르기스스탄이 제시한 방향성은 서방 국가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을 유도함과 동시에 키르기스스탄을 탈소지역 “민주주의의 진열장(the democratic showcase)”,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섬(an island of democracy)”(Anderson 1999)으로 불리도록 만들었다. 또 위와 같은 친서방적인 관계와 개방적인 움직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유일하게 키르기스스탄에서 비폭력 저항을 통해 부패 정부나 독재 정부에 민주주의와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인 ‘색깔 혁명(Color Revolution)’과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게 만드는 배경을 조성하게 된다.

<표 1> 2006-2022년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의 민주주의 지수<sup>2)</sup>

| 국가/연도   | 2006 | 2008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우즈베키스탄  | 1.85 | 1.74 | 1.74 | 1.74 | 1.72 | 1.72 | 2.45 | 1.95 |
| 카자흐스탄   | 3.62 | 3.45 | 3.3  | 3.24 | 2.95 | 3.06 | 3.17 | 3.06 |
| 키르기스스탄  | 4.08 | 4.05 | 4.31 | 4.34 | 4.69 | 4.69 | 5.24 | 5.33 |
| 타지키스탄   | 2.45 | 2.45 | 2.51 | 2.51 | 2.51 | 2.51 | 2.37 | 1.95 |
| 투르크메니스탄 | 1.83 | 1.72 | 1.72 | 1.72 | 1.72 | 1.72 | 1.83 | 1.83 |

| 국가/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우즈베키스탄  | 1.95 | 1.95 | 2.01 | 2.01 | 2.12 | 2.12 | 2.12 |
| 카자흐스탄   | 3.06 | 3.06 | 2.94 | 2.94 | 3.14 | 3.08 | 3.08 |
| 키르기스스탄  | 4.93 | 5.11 | 5.11 | 4.89 | 4.21 | 3.62 | 3.62 |
| 타지키스탄   | 1.89 | 1.93 | 1.93 | 1.93 | 1.94 | 1.94 | 1.94 |
| 투르크메니스탄 | 1.83 | 1.72 | 1.72 | 1.72 | 1.72 | 1.66 | 1.66 |

- 국가는 0에서 10까지의 점수가 매겨지며 0은 가장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나타내고, 10은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나타냄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제공되는 EIU 민주주의 지수를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

2) 본 표에서 제시된 민주주의 지수는 2022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색깔 처리된 국가 및 굵은 연도/지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혁명의 시기를 나타내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2년 EIU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EIU report Democracy Index 2022),”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2/>. (2023년 7월 20일 검색)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의 발전으로 논의를 귀결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권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2005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민주화 혁명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2006년에서 2008년의 민주주의 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이 아니라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혁명 이후에는 민주주의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이 관찰되지만, 2020년에 있었던 혁명 뒤에는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행 국가 지수(Nations in Transit Index: NIT)’에 따른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수변화를 보면(<표 2>), 키르기스스탄에서 있었던 3차례의 혁명은 2005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간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지만(2.33→2.36),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주의 이행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관측된다.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민주주의는 발전한 것이 아니라 멈추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03-2022년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 NIT 지수<sup>3)</sup>

| 국가/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카자흐스탄   | 1.83 | 1.75 | 1.71 | 1.61 | 1.61 | 1.61 | 1.68 | 1.57 | 1.57 | 1.46 |
| 키르기스스탄  | 2.33 | 2.33 | 2.36 | 2.32 | 2.32 | 2.07 | 1.96 | 1.79 | 1.89 | 2.00 |
| 타지키스탄   | 2.37 | 2.29 | 2.21 | 2.07 | 2.04 | 1.93 | 1.86 | 1.86 | 1.86 | 1.82 |
| 투르크메니스탄 | 1.17 | 1.12 | 1.07 | 1.04 | 1.04 | 1.07 | 1.07 | 1.07 | 1.07 | 1.07 |
| 우즈베키스탄  | 1.54 | 1.54 | 1.57 | 1.18 | 1.18 | 1.14 | 1.11 | 1.07 | 1.07 | 1.07 |

3) 본 표에서 제시된 20년 동안의 NIT 지수는 2012년과 2022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색깔 처리된 국가 및 굵은 연도/지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3차례 혁명의 시기를 나타내었다. Freedom House, “NIT 지수 2012년 보고서(Nations in Transit 2012)”, www.freedomhouse.org. (2023년 1월 30일 검색); Freedom House, “NIT 2022년 보고서(Nations in Transit 2022)”, www.freedomhouse.org. (2023년 1월 30일 검색)

| 국가/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카자흐스탄   | 1.43 | 1.39 | 1.39 | 1.39 | 1.36 | 1.29 | 1.29 | 1.32 | 1.32 | 1.36 |
| 키르기스스탄  | 2.04 | 2.11 | 2.07 | 2.11 | 2.00 | 1.93 | 2.00 | 1.96 | 1.86 | 1.75 |
| 타지키스탄   | 1.75 | 1.68 | 1.61 | 1.46 | 1.36 | 1.21 | 1.21 | 1.18 | 1.11 | 1.11 |
| 투르크메니스탄 | 1.07 | 1.07 | 1.07 | 1.07 | 1.04 | 1.04 | 1.04 | 1.00 | 1.00 | 1.00 |
| 우즈베키스탄  | 1.07 | 1.07 | 1.07 | 1.07 | 1.04 | 1.11 | 1.11 | 1.14 | 1.25 | 1.25 |

- 국가는 1에서 7까지 등급이 매겨지며 1은 가장 낮은 수준의 민주적 진보를 나타내고 7은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적 진보를 나타냄
- Freedom House에서 제공되는 NIT 지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는 앞서 설명한 키르기스스탄에서 있었던 혁명과 국가의 개방적-친서방적 대외정책이 키르기스스탄을 전 세계에 민주화로 나아가는 국가로서 인식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 배경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덜 독재적이며 민주적인 국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속에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다른 요인들인 외부적 영향(강대국들),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 경제적 요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씨족’이라는 요인과 그에 따른 정치적 동인을 경시함으로써 이곳에서의 혁명을 오로지 ‘민주화’ 움직임으로 ‘포장’하여 인식되게 했다. 또한 위에서 논의한 자료들은 혁명 요인의 다양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오직 민주적인 부분과 시민의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것은 혁명의 기저에 있는 다른 요인들을 쉽게 포착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 지역의 결정적 요인인 ‘씨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결국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정확한 해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씨족’을 고려하지 않은 논의는 ‘민주화 혁명’은 일어났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지수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을 나타낸 것처럼, 실제 현실 반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변동에 대해 기존의 개념인 ‘민주화 과정’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씨족 중심의 정치적 과정이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정치변동에 매우 큰 요인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논의 및 논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정치변

동을 중앙아시아 지역의 특징인 ‘씨족 정치’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격동적인 정치변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동인을 제시 및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진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키르기스스탄의 ‘혁명’에 대해 논할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해 ‘씨족’에 기초하여 분석 및 논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적 배경이 되는 ‘정치 엘리트 생존’ 개념과 ‘내각 순위’ 개념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인 ‘내부(Inner)’와 ‘외부(Outer)’ 서클 개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씨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이 중앙아시아라는 특수한 지역에 적용되었을 때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적용되는 실질적인 씨족, 즉 키르기스스탄 씨족의 역사, 종류, 경제력 등을 분석하여 키르기스스탄 씨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씨족의 분포와 영향력 파악과 논의를 통해 ‘씨족 정치’로서의 기능을 해석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이론적 방법 그리고 ‘씨족’ 개념과 더불어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인터넷 및 다양한 소스로 제공되는 인명록 자료를 통해 키르기스스탄 내각을 데이터화 하여 논의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자료와 거어(Gurr)의 ‘상대적 박탈이론’을 적용하여 매우 이질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만 나타나는 정치변동과정<sup>4)</sup>을 논의하고 이곳에서의 정치변동의 메커니즘을 파악 및 논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중요한 요인과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씨족 정치와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매우 비슷한 문화적,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정치적 문화(포스트 소비에트)를 지니고 있지만,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1991년 독립 이후 대략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 명의 지도자가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며 지배하였다.

## II.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 1. 선행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sup>5)</sup>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있었던 혁명(특히 색깔 혁명)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키르기스스탄의 혁명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가 불가피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을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열쇠로 제시하는 ‘씨족’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정치변동(‘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시각들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를 분석하여 표를 통해 이론과 주요 방향으로 분석하였고, 각각의 방향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표 3>). 덧붙여, 제시된 표의 관점/시각들 외에 ‘체제 순환(Regime Cycle)’ 관점(Hale 2005)이나 ‘권력의 재조직’으로 바라보는 연구들(Radnitz 2006; Juraev 2008)도 존재하며, 이처럼 각각 다양한 이론적 배경하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정치변동을 논증하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다음으로, 키르기스스탄 및 중앙아시아의 ‘비공식 정치’와 ‘씨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특수성과 정치변동/정치적 궤적(Political Trajectory)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로써 사용되며, 이 지역에 대한 해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Collins 2004; Kreuzer 2005; Бородин 2013; Болпонова 2013; Болпонова 2015; Комкова 2018; Воронин & Бакина 2019; Егоров & Рекк 2020; 엄구호 2009; 강봉구 2009a; 권현중 2019; 이경원 202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적인 배경과 논의를 중심으로 적혀 있는 반면, 경험적 자료를 통해 씨족으로 인한 정치변동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5) 본 연구에서는 정권의 변화, 즉 정치변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치변동’이란 “정치의 안정성 또는 균형상태가 흔들려서 정치체제의 내부 집단 간의 분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변혁, 또는 정치의 일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권력관계의 이동과 지배 관계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치동태에 관한 개념에서 가장 광의이며 상위의 개념을 연구에서 사용한다(진덕규 1997, 515).

<표 3>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관련 연구

| 키르기스스탄 ‘혁명’ 관련 연구  |  |   |
|--------------------|--|---|
| 관점 및 이론            | 주요 방향  | 시사점 및 한계점   |
| ‘정통적 민주주의 이행론적’ 관점 | 1. 큰 틀에서 구소련 지역에서 발생한 ‘혁명’을 탈소비에트 민주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논의(McFaul 2002).   | ‘이행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연구 및 논의하여 많은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강한 설명력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혁명사와 그 배경과 양상을 이해하는 데 적합. 그러나 혁명 자체에 초점을 집중적으로 맞추었기에 상대적으로 혁명 이후에 벌어지는 국내 정치변동에 대한 논의와 ‘국외적 요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
|                    | 2.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혁명’에 대해 ‘구조적 선결 조건(structural prerequisites)’ - 민주화 성격, 이곳에서 있었던 선행조건들, 혁명의 전반적인 과정(배경 및 경과),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국가의 특수성 등을 바탕으로 논의(Lewis 2008; Collins 2011; Jones 2010; 윤익중 2010, 양정훈 2011). |   |
|                    | 3. 국내의 ‘정치 행위자(political actor)’에 바탕하여, ‘제3의 민주화 물결(the third wave of democracy)’을 설명하는 민주화 비교이행론을 탈소비에트 지역에 적용 및 논의(Schmitter & Karl 1994; Linz & Stepan 1992; Przeworski 1991; 임경훈 2003).            |   |
| ‘국외적 요인’           | 1. ‘국외적 요인’인 서방의 개입 -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Kopstein & Reilly 2000; Way & Levitsky 2007; Way & Levitsky 2010).  | ‘민주화’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존재하지만, 서방 국가의 민주화 증진 정책 및 적극적인 개입이 오로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에 그 한계점이 명확.  |
|                    | 2. 서방의 개입 - 이 지역에서의 정치변동의 특징(미국 및 서방 세력의 개입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함; 새로운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박태성 2007; 황성우 2010; 송승중 2017; 우평균 2017).  | 서방의 개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민주화 혁명 이후의 민주화 부진’이라는 현상을 설명, 그러나 이 또한 국내적 요인을 무시하는 한계가 존재.   |

▪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관련 논문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

정리하면,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관련 연구들은, ‘이행론적’ 관점에 기초하여 구조(structure)와 행위자(actor)를 중심으로 또 ‘국외적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 및 논의하여 많은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강한 설명력과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통으로 키르기스스탄이 포함된 중앙아시아의 특

징인 ‘비공식 정치(씨족 정치, 후견주의 등)’를 짧게나마 소개는 하지만 정확하게 포착 및 도출해 내지 못하는 점과 이러한 비공식 정치의 영향력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씨족’ 및 ‘씨족 정치’와 관련된 연구들은 키르기스스탄과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의 정치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또 하나의 큰 틀로써 학문적인 배경과 이론을 제공하지만, 결정적으로 경험적 자료를 통한, 테스트와 검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 ‘정치 엘리트 생존’ 개념

본 연구에서는 ‘씨족’이라는 배경에서 적용되는 ‘씨족 정치’의 메커니즘(대표적으로 ‘후견주의’)을 확인하기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배경으로 ‘정치 엘리트’의 생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엘리트란 정치, 외교, 과학, 경제, 예술,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된 소수집단이며, 국가 또는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이러한 개념 아래에서 일반대중(mass)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엘리트 그룹 중에서 ‘정치 엘리트’에 한정하였고,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정치 엘리트’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으며, 씨족의 대표자이자 모든 씨족의 연결점인 ‘지도자(대통령)’의 생존을 중심으로 개념 분석을 한정하였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의 목표에 대해 이론적인 바탕을 제시한 저명한 학자인 부에노 데 메스키타(Bueno de Mesquita)에 따르면, 지도자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다(de Mesquita et al. 2002, 559-590).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선출인단(selectorate)’과 ‘지배연합(winning coalition)’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생존의 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여기서 선출인단이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정치조직체 내 사람들의 집합이며, 지배연합이란 이들의 지지 없이 지도자의 자리가 유지될 수 없는 선출인단의 부분 집합이다. 즉,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지자들로 이해할 수 있다.

부에노 데 메스키타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지도자에게는 지배연합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적 재화보다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사적 재화에 할당된 자원 풀(pool)은 지배연합의 규모

가 커질수록 얇아지고 따라서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 지도자에게 더 매력적인 방법이 된다.<sup>6)</sup>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지배연합의 크기를 고정된 상태에서 선출인단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새로운 도전자가 현재의 지도자를 교체(선거/혁명/쿠데타 등의 모든 방법을 통해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과거의 지배연합 구성원은 자신이 새로운 지배자의 지배연합으로 포함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지도자에 대해 지속해서 충성한다는 것이다(de Mesquita et al. 2002, 563).

따라서 민주주의체제와 같은 대규모의 지배연합 시스템에서 지도자들은 공공재 제공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대조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소규모 지배연합의 경우에는 정치적 경쟁이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 재화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가장 높은 친화도(충성도)를 지닌 그룹의 구성원을 식별하면 자신의 권력을 쉽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지배연합 구조일 경우에 지도자들은 ‘역 로빈 후드(reverse Robin Hoods)’처럼 행동한다고 부에노 데 메스키타는 논증한다. 즉, 지도자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연합에 재분배하게 된다. 논의를 정리하면, 지배연합이 크면 지도자들은 모두가 같은 크기의 몫을 받기 때문에 나눌 파이의 크기를 최대화하려고 하지만, 지배연합의 규모가 작으면 지도자는 특권층에게 가능한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 파이의 전체 크기를 희생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을 중앙아시아에 적용하여 논의한다면, ‘씨족’이라는 비공식적인 정치가 적용되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상, 지도자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지자의 수는 곧 특정 씨족의 대표자들로 그 수가 크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는 씨족의 구조가 매우 끈끈하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지도자가 이끄는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전체의 씨

6) 하나의 예시로, 지도자는 1,000\$라는 재화를 바탕으로 하여 충성과 지지를 얻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유지해야 하고, 1,000\$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20\$라는 공공재를 생산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배연합의 구성원이 10명일 경우 지도자는 공익보다 이들에게 100\$를 제공하고 충성을 얻음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연장하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지배연합의 구성원이 100명일 경우 그들에게 각각 10\$만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공공재를 생산하여 모두에게 20\$를 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다(de Mesquita et al. 2002, 562).

족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도자의 가장 큰 목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라고 전제할 때 중앙아시아에서 지도자의 생존 방식은 자신을 지지하는 씨족의 대표들로부터의 충성을 받아 내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적 재화를 제공해야 한다.

### 3. ‘내각 순위’ 개념과 내부 서클 및 외부 서클

‘씨족’이라는 배경에서 적용되는 ‘씨족 정치’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위에서 논의한 이론/방법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와 씨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다른 무엇보다 키르기스스탄 내각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내각 순위(Ministry Rank)’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개념은 정부 조직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임명하는 장관들의 계급 구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 구조는 정부 내부의 지위나 권한을 갖는 자리를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치적 임명’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장관 간에 ‘상대적인 지위/권한’이 있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 내각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각 국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장관 간의 계급 구조<sup>7)</sup>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급 구조는 각 장관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점은, 지도자는 큰 영향력이 없는 내각의 일정한 자리를 반대파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일수록 특히 ‘포용적이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논증한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은 ‘부족주의’가 특징인 아프리카 체제의 핵심이며, 지도자들은 명목상 ‘민주주의’ 행태를 채택하는 동안 좁은 엘리트 집단에 “권력을 퍼트려 권력을 유지(keep power by spreading it around)”한다(Raleigh & Wigmore-Shepherd 2020,

7) 국가마다 장관들의 순위와 계급에 대한 구조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력을 갖는 중요한 자리로는 국방부, 외무부, 재무부, 내무부 등이 존재한다. 중간 또는 하위 자리는 대표적으로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등의 자리가 존재한다.

22). 즉,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인종 출신의 정치인들을 하나의 연합으로 통합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효과적으로 공고히 하는 전략을 세움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도모한다. 이 전략의 효과성은 다음에 있다. 지도자들은 ‘포용력’이라는 틀을 통해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하여 외부의 도전과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막는 동시에 배분 속에 내부, 외부에 따른 분류를 실시한다. 지도자는 자신의 정권의 존속을 위한 지지층들에게는 행정적인 권한이 존재하는 ‘내부 서클’로 배치하고, 반대편들에게는 명목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서클’로 배치함으로써 반대파의 정치적 역량을 억제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공격, 즉 정권의 교체를 막는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부족주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씨족 정치’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한 전략은 본 연구가 다루는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분석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개념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상당한 정치적/행정적 권한을 갖는 직위에 대해 포함 또는 배제 정책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자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처럼 ‘비공식 구조/조직(대표적으로 ‘부족’, ‘씨족’)의 정치적 개입이 지배적인 지역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내부 서클’ 및 ‘외부 서클’ 개념(Lindemann 2011; Francois et al. 2015)을 사용하여 키르기스스탄 ‘씨족 정치’와 정치변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개념과 방법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내각을 분류하고, 지지자들이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지불받는 권력을 파악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에서 존재하였던 정치적 불안정 시기와 정치변동을 지도자와 씨족 지지자들 간에 존재하였던 권력 배분과 약속, 신뢰, 견제 등을 분석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많은 것이 불투명한 ‘씨족 정치’ 속에 존재하는 권력적 이동과 그 메커니즘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앞서 제2절과 제3절을 통해 논의한 내용들은,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비공식 정치(씨족 정치, 후견주의 등)’를 짧게나마 소개는 하지만 정확하게 포착 및 도출해 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과 경험적 자료를 통한, 테스트와 검증이 부족하다)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이론 그리고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덧붙여, 국내 중앙아시아 논문 중에서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논문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편밖에 되

지 않으며, 내용 대부분이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을 다루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국내 정치에 대한 논문은 단 한 편도 투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영형 2021, 128-131). 물론 이것은 학위논문으로 한정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키르기스스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학문적 연구는 아직도 초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정치 그리고 씨족에 관한 연구가 없다.

결국 ‘이행론적’ 시각과 ‘민주화’ 요소로만 논의하였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정치 엘리트 생존’ 개념이라는 이론으로 분석함으로써 극복하고, ‘내부’ 및 ‘외부’ 서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하였던 경험적 자료를 통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이 지역의 정치변동에 대해 보다 더 큰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의 독창적인 부분이며, 키르기스스탄 및 ‘씨족 정치’에 부족한 학문적 연구에 기여하는 바라고 사료된다.

### Ⅲ. 씨족 개념 및 키르기스스탄 씨족의 특성

#### 1. 중앙아시아에서의 씨족과 씨족 정치

씨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발전단계론에 따른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류사회학적 이론에 입각한 학자들은 발전론적인 배경에 바탕하여 인류는 ‘씨족-혈족-부족-국가’로 나아간다고 본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은 대체로 개인(individual)이라는 단순 개체부터 시작하여 가족(family)-씨족(clan)-부족(tribe)-민족(nation)-민족국가(nation-state)의 발전 과정을 지니고 있다(이완범 2006). 동일하게 사회발전단계론에 기초를 두고 루이스 모건(L.H. Morgan)은 인류사회의 발전 과정을, 성(性)을 기초로 한 사회조직: 씨족, 포족(胞族), 부족, 부족연합체, 국가의 단계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씨족의 개념은 ‘조상이 같거나 같다고 여겨지는 혈연 공동체’와 ‘원시 사회의 기초 단위’로 함축하여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씨족’의 개념은 발전론적 시각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과거의

체제'이며, 체제의 완성도는 미개하고 원시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씨족'의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은 '씨족'을 오로지 전근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씨족'이 기능하는 중앙아시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기에, 본 개념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씨족' 개념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에서 '씨족'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학자는 씨족이 현대화의 맹공격과 관료제의 부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며, 동일하게 대부분의 근대화 및 제도주의 이론은 현대 시대에서 씨족의 존재성/관련성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서 씨족이란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요소가 아니라 현대인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실질적인 사회적 개념이다.

캐슬린 콜린스(Kathleen Collins)에 따르면, 역사가와 인류학자들은 종종 씨족과 식민 및 탈식민 국가 사이의 긴장을 관찰해 왔으며, 현대 국가의 맥락에서 씨족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씨족은 전통적, 전근대적 시대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 씨족은 매우 현대적인 조직이라고 논증한다. 또한 로이드(Lloyd)와 수잔느 루돌프(Susanne Rudolph)의 표현에 따르면 씨족은 초기 정치 시스템에서 후기 정치 시스템으로 적응하고 지속하는 능력에서 '전통의 현대성(modernity of tradition)'을 보여준다(Collins 2006, 43-46).

결국 콜린스는 중앙아시아에서 씨족을 이해하려면 '개인'을 사회학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논증한다. 또한 중요한 두 원칙인 '씨족 관계'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씨족을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로 그리고 사회적, 규범적 맥락에 따라 이해관계와 선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친족'은 씨족 관계 및 정체성의 핵심 기반이며, 네트워크는 이 단위의 조직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현대 중앙아시아 씨족의 개념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광범위한 친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비공식 조직.”(Collins 2006, 25)

## 2. 키르기스스탄 씨족의 특성

위에서 논하였듯이, 중앙아시아에서 씨족이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키르기스스탄도 이러한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씨족은 크게 3개의 씨족 연합체(<표 4>, 굵은 글씨로 표시), 남부를 근거로 하는 ‘왼쪽 날개(솔 카나트, Сол канат)’와 ‘이즈킬릭(Ичкилик)’ 그리고 북부를 근거로 하는 ‘오른쪽 날개(웅 카나트, Он канат)’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 및 영향을 퍼트리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7개의 주[추이(Chuy) 주, 나린/나른(Naryn) 주, 이식쿨/이스쿨(Ysyk-Kul) 주, 탈라스(Talas) 주, 잘라-아바드(Jalal-Abad) 주, 오쉬(Osh) 주, 바트켄(Batken) 주]를 통해 이들의 거주지역을 특정해본다면, ‘왼쪽 날개’는 오쉬, 탈라스 그리고 잘라-아바드 주를 기준으로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왼쪽 날개’와 연합 및 융화된 ‘이즈킬릭’은 바트켄 주를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다. ‘오른쪽 날개’는 나머지 주인 추이, 이식쿨 그리고 나린 주를 기준으로 씨족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에 대해 논하기 위해 먼저 지역 및 역사적 부분을 다뤄본다면, 19세기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을 통해 북부 지역이 러시아 제국에 먼저 병합되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남부 지역이 병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차이는 현대 키르기스 씨족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러시아 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된 북부 지역의 씨족들은 남부 지역의 씨족들보다 상대적으로 먼저 외국의 문물 및 사상 그리고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제국은 북부 지역을 기점화/요새화하고 남하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이후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병합하였을 때 북부와 남부 지역에 대한 관리의 중심, 즉 행정적/정치적 처리의 중심을 이미 그 구조와 기틀이 형성되어 있는 북부를 중심으로 형성하였다.<sup>8)</sup>

8) 이러한 행정적/정치적 중심지가 북부가 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이유는, 북부의 씨족 연합체인 ‘오른쪽 날개’는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피해 러시아 제국에 자의적으로 보호 및 통치를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러시아 제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다. 반대로 남부 지역의 씨족 연합체인 ‘왼쪽 날개’ 그리고 ‘이즈킬릭’은 코칸드 제국 및 부하라 제국에 포함되어 저항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순응과 기초가 갖추어진 북부가 더 통치에 유리했다.

<표 4> 키르기스스탄 씨족의 종류

| 키르기스(Кыргыз)  |                |                    |
|---|----------------|--------------------|
| 왼쪽 날개(Сол канат)  |                | 오른쪽 날개(Оң канат)   |
| 쿠쉬추(Кушчу/Кутчу)<br>사루(Сару)<br>문두즈(Мундуз)<br>제티겐(Жетиген)<br>크타이(Кытай)<br>바스즈(Басыз)<br>툼보이(Төбөй)<br>총 바그쉬(Чон Барыш) | 이즈킬릭(Ичкилик)  | 사르 바그쉬(Сары багыш) |
|   | 크쁘착(Кыпчак)    | 부구(Бугу)           |
|   | 나이만(Най ман)   | 사약(Саяк)           |
|   | 테이트(Тей ит)    | 솔토(Солто)          |
|   | 케섹(Кесек)      | 툼 세이트(Тыңм сей ит) |
|   | 크드르샤(Кыдыршаа) | 체키르 사약(Чекир саяк) |
|   | 칸드(Канды)      | 제디게르(Жедигер)      |
|   | 오르구(Оргу)      | 아즈크(Азык)          |
|   | 보스톤(Бостон)    | 체리크(Черик)         |
|   | 노이굿(Ной гут)   | 바그쉬(Багыш)         |
|   | 아바트(Ават)      | 카라 바그쉬(Кара Багыш) |
|   | 툼노스(Төөлөс)    | 아지기네(Адигине)      |

· Асанканов др.(2016, 269-275)의 책을 바탕으로 저자가 새롭게 구성

이러한 기조는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들어선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이어져 내려왔으며,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중심도 북부로 계속 유지되었다. 추가로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북부의 씨족들 중에서 수도 비슈케크(과거 프룬제)에 거주한 씨족들이 다른 모든 지역의 씨족과 혈통 중에서 특히 외부 통제와 경쟁에 능하였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연방의 ‘중앙’은 자신들의 정책에 가장 충성을 다할 씨족들, 충성과 동시에 국민을 위해 로비를 할 수 있고, 받은 대가로 이익을 배분함으로써 ‘중앙’에 대한 반발과 반대를 막을 수 있는 씨족들을 환영하였는데, 북부 씨족들은 이러한 요건에 신속히 반응하였다. 이로 인해 북부 씨족들은 정치적인 후원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결국 정치적 역량 상승으로 귀결되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Болшонова 2013, 4).

몇몇 학자는 이러한 ‘씨족’의 정치적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씨족이 엘리트(elite)의 개념 중 권력을 장악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 등을 누리는 소수의 지배 계급으로 정의되는 ‘권력 엘리트’(Mosca 1939, 50)로서 작동한다고 본다. 특별히 중앙아시아에서의 ‘씨족 정치’에서 ‘권력 엘리트’는 주요 경제적 분야에 참여하기 때문에(국영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

기업의 대표로 존재) 경우에 따라 ‘경제 엘리트’와 중첩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논증한다(박상남 2011, 168).

위의 개념은 지금까지 살펴본 키르기스 씨족들에 정확히 부합한다. 키르기스의 씨족들도 소비에트 연방의 ‘중앙’과 현지의 국민과의 연결과 중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많은 권력과 경제력을 손에 넣었다. 따라서 키르기스의 씨족들은 ‘권력 엘리트’이자 곧 ‘경제 엘리트’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키르기스의 씨족들은 특정한 ‘엘리트’ 층을 구성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가족, 친족들에게 재화와 지지를 베풀며, 매우 끈끈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이러한 씨족의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후견주의’ 또는 ‘후견 네트워크’이다.

션 로버트(Sean R. Roberts)에 따르면 ‘씨족 정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후견 네트워크’는 중앙아시아에서 권력의 원천이자 공동의 비즈니스 활동, 지역적 연대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다양한 엘리트 집단들을 양성하는 동인이다. 그리고 “후견주의 체제에서 후원자(통치자)는 충성스러운 고객(통치자를 둘러싼 엘리트 집단)에게 정치적 지위, 재산축적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 주는 대신 그들의 충성심을 공포와 협박을 통해 유지, 강화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박상남 2011, 171 재인용)으로 보았다. 따라서 ‘씨족’이라는 것은 근대가 아닌 20세기 소비에트 시기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과 정치적 결정을 좌우하는 정치제도이며, 소련의 붕괴 이후 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씨족’은 “정치적 관념이나 지배규범 및 정치적 상징 등으로 구성된 ‘유형화된 정치적 가치체계’”(박상남 2007, 272)이다.

정리하면, 키르기스스탄의 씨족은 지역과 역사적인 기반으로 형성된 경제적, 문화적,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후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초로 하여 자신들의 가족, 친족, 씨족 구성원들에게 재화와 이익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도와주고 밑에서 받쳐주는 지도자에게 씨족의 모든 역량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민족적 정체성을 위해 ‘씨족’이 강화된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씨족 네트워크가 매우 깊숙이 그리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도자의 관점에서 이들의 지원을 얻는 것과 못 얻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 IV.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

### 1. 키르기스스탄 내각의 엘리트 분포 데이터

본 연구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변동에 대해 기존의 개념인 ‘민주화 과정’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씨족 중심의 정치적 과정이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정치변동에 매우 큰 요인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논의 및 논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엘리트 생존’ 개념 하에 지도자의 가장 큰 목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전제를 하고, 키르기스스탄의 내각에 내부 서클과 외부 서클 개념을 적용하여 특정 ‘씨족’ 또는 ‘씨족 그룹’이 상당한 정치 및 행정 권한을 갖는 자리까지 확장되는지 분석하는 경험적 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가장 이상적인 분석은 모든 정치인의 출신과 씨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정치인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정치 구성원이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대통령제<sup>9)</sup>가 유지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실질적인 행정을 다루는 내각의 구성원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사료 되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대 키르기스스탄 내각 구성원(장관)들에게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각에서의 그 중요도를 파악하여 내부 서클과 외부 서클로 분류하기 위해 내각 순위(Ministry Rank) 개념을 적용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 중요도 분류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구하기 위해 위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African Cabinet and Political Elite Data Project(ACPED)<sup>10)</sup>의 내각 순위(Ministry Rank)<sup>11)</sup>의

9) 독립 초기 대통령제로 시작하였다가, 2010년 신헌법에 따라 의원내각제로 전화되었으나, 고전적인 의원내각제와는 다르게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결국, 이러한 점과 더불어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문화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하였다.

10) ACPED는 아프리카 내각 및 정치 엘리트 데이터 프로젝트로써 1997년부터 국가별, 월별로 각료 및 직책을 시간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아프리카 국가들

‘Primary ministries’에 기재된 분야들을 키르기스스탄 내각에 적용하여 내부 서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Secondary ministries’와 ‘Tertiary ministries’에 기재된 분야들은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외부 서클의 분야로 분류하였다.<sup>12)</sup>

최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키르기스스탄 역대 내각 구성원(장관)들의 연혁을 조사하여 각 부서와 집권시기년도(임명 및 해제)를 분류하였고, 각 구성원의 출신지를 조사하여 위에서 논의한 키르기스스탄 씨족의 종류와 그들의 분포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데이터를 다시 정치적인 능력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춘 씨족 연합체 ‘오른쪽 날개(북부 씨족)’와 ‘왼쪽 날개(남부 씨족)’로 분류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내각 구성원 데이터는 키르기스스탄의 공식 국가 사이트(gov.kg), 국가 및 영토의 국가 원수/정부 원수의 목록과 외무 장관에 대한 목록을 제공하는 사이트(Rulers.org), 키르기스스탄 최초의 독립 통신사 “AKIpress”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 아카이브(인명록) “Who is Who(Кто есть Кто)(who.ca-news.org)”, “CentrAsia(ЦентрАзия)”에서 제공하는 인물 정보 아카이브(인명록)(centrasia.org/person.php)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족보 Sanjyra(Санжыра)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sanjyra.net) 및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정치변동의 동인을 명확히 포착해 내기 위해 정치적 변동이 있었던 2005년 제1차[툴립 혁명-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2010년 제2차[멜론 혁명-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키르기스스탄 혁명을 비롯하여 2020년에 있었던 제3차 키르기스스탄 혁명[소론바이 젠베코프(Soronbay

에서 존재하는 이질적인 정치적 환경(지도자가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동족, 가까운 동맹들만을 선임함으로써, 정치적 환경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보인다)을 측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인 ‘낮은 수준의 동족 편애’, ‘대규모 집단 지배’ 그리고 ‘공식적인 정치’에서 대체로 인종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포용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Raleigh & Wigmore-Shepherd 2020, 22-47).

11) 자세한 내용은 African Cabinet and Political Elite Data Project(ACPED)에서 제시하는 Codebook p. 6을 참고하라. African Cabinet and Political Elite Data Project(ACPED), Codebook, <https://versus-erc.com/data-acped>. (2023년 7월 25일 검색)

12) 대부분의 국가는 분야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명칭이 존재하거나, 몇 가지의 분야가 통합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Ecology and Technical Supervision(Министр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экологии и технического надзора)”처럼 환경부, 자원부 그리고 기술 감독부가 통합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Rank(Primary, Secondary 그리고 Tertiary)에 제시되는 분야를 큰 틀에서 키르기스스탄 내각에 맞게 적용하였다.

Jeenbekov)]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씨족 엘리트들의 ‘상대적 박탈감’ 인식과 정치변동 과정

앞서 제Ⅱ장 마지막에서 논하였듯이 기존의 논문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 자료와 관련하여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연구들이 경제, 외교, 사회/문화 등을 다루고 있는 반면, 키르기스스탄 국내 정치에 대해 다루지 않았던 것을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비공식 정치’와 관련된 요소를 직접적으로 다루 분석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소개만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씨족’이라는 요소를 새롭게 적용하여, 이에 바탕하여 키르기스스탄의 국내 정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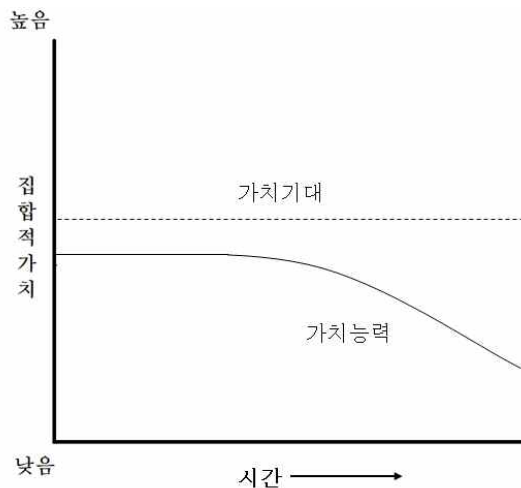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와 씨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메커니즘을 논의 및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씨족 정치’는 다른 무엇보다 ‘후견 네트워크’가 매우 특징적이며, 이러한 네트워크 속에서는 통치자와 엘리트들(씨족들) 간의 상호작용이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내각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기에, 이 배경 속에서 지도자와 엘리트들(씨족들) 간의 상호작용은 다른 무엇보다 권력의 배분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결국 씨족들 간에 권력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추론 가능하다.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엘리트들(씨족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정치적 변동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거어(Gurr)의 ‘상대적 박탈이론’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덧붙여, 이러한 분석 방법과 이론 적용은 기존의 연구에서 소개만 하였던 ‘비공식 정치’를 직접적으로 ‘씨족’이라는 요소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타 논문들과 차별화된 점이라고 사료된다.

거어는 ‘상대적 박탈이론’을 논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행위자의 가치기대(value expectation)와 가치능력(value capabilities) 사이의 인지된 괴리(perceived discrepancy).” 여기서 ‘가치기대’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몫)라고 믿는 재화와 삶의 조건”이며, ‘가치능력’은 “자신들이 실제로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재화와 삶의 조건”을 의

미한다(임희섭 1999, 50). 그리고 거어는 ‘가치기대’와 ‘가치능력’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상대적 박탈을 크게 3가지로, 즉 ‘체감적 박탈(decremental deprivation)’, ‘열망적 박탈(aspirational deprivation)’ 그리고 ‘점진적 박탈(progressive deprivation)’로 분류한다(임희섭 1999, 51).

이 3가지 모두 일정 부분 ‘씨족 정치’의 ‘후견 네트워크’ 속에서의 통치자와 엘리트들(씨족들) 간의 상호작용에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집단 내의 가치기대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가치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지할 때 느끼는 ‘체감적 박탈’, 즉 한때 가졌던 것을 잃는 데 대한 분노가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정치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적합한 이론이라 사료된다.

<그림 1> 체감적 박탈의 모형



· 임희섭(1999, 51)의 책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함

추가로, 본 연구의 더 정확한 결과 해석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전제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는 모두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및 문화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더욱더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첫 번째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구조에서 통상적으로 ‘오른쪽 날개(북부 씨족 연합체)’가 기본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부와 남부의 역사적인 요인으로부터 형성된 북부 중심적인 행정, 문화, 경제 그리고 정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키르기스스탄은 독립 후 주변국과 비교하였을 때 열악한 발전과 부족한 자원, 국토의 40%가 해발 3,000m 이상인 고산지대 그리고 적은 인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자신만의 ‘경쟁력’으로는 세계 경쟁에 끼어들 수 없었고, 외부의 투자 유치를 받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르기스스탄은 국가의 방향성을 처음부터 서방을 향한 ‘민주화, 민주주의’로 잡았으며 이를 통해 국가를 선진함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권력의 안정성을 꾀했다. 비록, 이것이 실질적인 ‘민주화’로 진행되었느냐에 대한 것은 의문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지향점은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II장 제2절의 ‘정치 엘리트 생존’ 개념에 바탕하여,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이라는 것을 전제로 가정하며, 이러한 가정과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적 배경하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씨족’은 곧 통치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de Mesquita et al. 2005). 또한 ‘씨족’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따라 지도자는 모든 민족에게 이익을 주는 ‘공공재’ 대신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씨족 그룹/엘리트들에게 ‘사적 재화’를 제공해 주면서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이끌어내야 한다.

#### (1)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시기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sup>13)</sup>는 ‘추이(Chuy, Чуй)’ 주의 ‘케민 라이온(Кеминский район)’에서 태어났으며, ‘사르바그쉬(Сарьбагыш)’<sup>14)</sup>

13)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는 키르기스 과학 아카데미 회장 출신의 키르기스스탄 초대 대통령이다. 그는 1989년 소비에트 최고 회의 의원에 선출된 이후 1990년 개혁의 흐름 속에서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91년 8월 31일 독립선언 후 2005년 4월 11일까지 키르기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역임하였다. 그는 1995년 및 2000년 선거에서 약 70%의 득표수로 연임하였으며 이후 2005년에도 임기연장을 시도하였지만, 제1차 키르기스스탄 혁명으로 인해 사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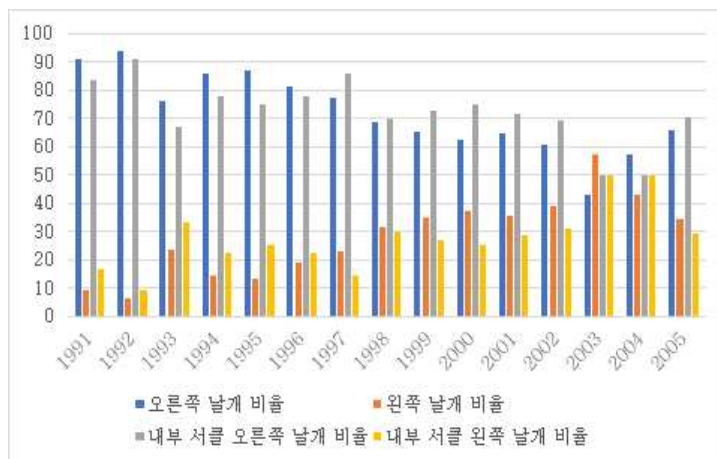
14) 대표적인 오른쪽 날개의 씨족으로서 1930년 스탈린 대숙청 이후 같은 ‘오른쪽 날개’ 그룹인 ‘부구(Бугу)’의 권력과 지위가 약해지면서 대신 권력을 잡아 이어서 내려왔으며 ‘오른쪽 날개’ 씨족 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씨족 출신이다. 즉, 그는 ‘오른쪽 날개(웅 카나트, Он канат)’ 출신으로서 ‘오른쪽 날개’ 출신의 엘리트들이 그의 지지그룹 씨족으로서 존재하였다.

아카예프가 통치한 20세기 말 정치적 씨족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였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1993년 5월 5일 키르기스 공화국 헌법이 수정 및 추가된 이후 통합된 선거구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선거구의 통합은 혈연/씨족들에게 지역 정치 및 관료 기구를 통제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V. 하닌(V. Ханин)은 거의 모든 범주의 권력 자원, 즉 부족의 충성심을 동원하는 이 비공식적 동원 메커니즘에서 선거 과정과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권력 지원이 씨족 지도자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Ханин 2000,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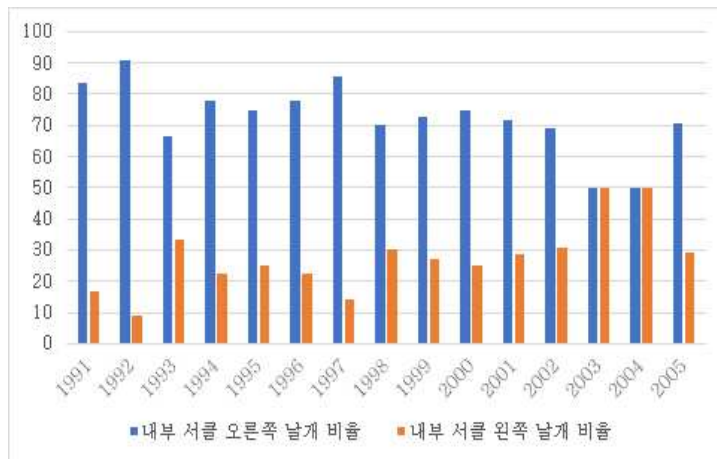
이러한 것들로 인해 아카예프의 지지 세력 씨족들이 20세기 말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고화된 이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내각 내의 권력의 변천이 발생하게 된다. 이 흔들림은 큰 틀에서 ‘민주화, 민주주의 지향’, 아카예프의 3선 투표, 그리고 그의 ‘가족 정치’라는 3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표 5>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씨족 분포 -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시기



▪ 제IV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방법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

<표 6>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내부 서클(inner circle)’ 씨족 분포  
-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시기



· 제IV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방법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

‘민주화, 민주주의 지향은, 아카예프 통치 시기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내부 서클’ 씨족 분포(<표 6>)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21세기부터 키르기스스탄의 내부에서는 균형적인 권력 배분을 요구하였고 2000년도부터 매년 내부에서의 균형, 즉 아카예프의 지지 씨족 연합체인 ‘오른쪽 날개’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반대 씨족인 ‘왼쪽 날개’의 영향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민주화, 민주주의 지향’으로 인해 생기는 영향이 크지만, 두 번째 이유인 아카예프 대통령의 3선 투표도 무시할 수 없다. 아카예프는 1995년에 두 번째 임기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였고, 세 번째 임기를 위해 2000년에도 출마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표 6>을 통해 아카예프가 다시 출마한 연도들을 살펴보면, 각 선거가 있는 연도(1995년, 2000년)는 항상 전년도 보다 내부 서클에서 자신의 반대파인 ‘왼쪽 날개’의 씨족 일원들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아카예프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반대파인 ‘왼쪽 날개’의 반발을 방지하고자/억누르고자 비율을 조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이유인 ‘가족 정치’도 아카예프 초기 집권 시기보다 2000년도에 내각에서의 권력의 균등화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아카예프는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친척 씨족들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엘리트로 구성하였으

며, 덧붙여 이들에게 대규모 금융 사업을 맡김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구현하였다. 위와 같은 현상은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가족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카예프 대통령은 집권 시기 동안 권력을 더욱더 공고화시키고자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지지 씨족 연합체의 내부적 반발을 억누르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 반대 씨족인 ‘왼쪽 날개’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리라 추측된다. 물론 이것은 향후 자신의 권력에 대한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주변국의 경우(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러한 관계성이 더욱더 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가족 정치’가 성공하였기에<sup>15)</sup> 그리고 ‘씨족 정치’의 특성상 ‘지배 그룹 내에서의 권력 다툼’<sup>16)</sup>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택하였을 것이라 사료된다.

결국, 위에서 나열하고 설명한 3가지의 이유로 인해 2000년도부터 기존의 지배 세력의 반대 그룹인 ‘왼쪽 날개’ 씨족들의 비율이 우상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키르기스스탄 내부에서 이러한 정치적 동등화 및 균등화로 조금씩 나아가자, 앞서 1991년-1999년도와는 달리 ‘왼쪽 날개’ 그룹도 점차 정치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2002년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 [대표적으로 악시(Aksy) 사건<sup>17)</sup>]가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 내의 ‘가치기대’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가치능력’이 떨어진다고 ‘오른쪽 날개’가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기존의 내각을 비롯하여 권력을 잡고 있었던 씨족 그룹은 ‘오른쪽 날개’였지만, 정치적 권력 분배의 동등/균등화로 인해 ‘왼쪽 날개’ 씨족 그룹들의 정치적인 활동과 함께 이들의 실질적인 권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날개’는 과거부터 자신들이 정

15) 아카예프가 통치할 당시 언급된 중앙아시아 4개국의 지도자들[라흐몬(Rahmon),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카리모프(Karimov), 니야조프(Niyazov)]은 한 명의 지도자가 ‘씨족의 영향력’을 뛰어넘어 자신의 위치를 완벽히 공고히 하였으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리고 이것의 기반으로 자신의 가족/친척들을 주요 요직에 배분하였다.

16) 씨족 구성원들은 각각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공통성은 물론, 혈연 및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족의 연합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씨족 정치’에서 내부 권력 다툼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수 없다.

17) 악시(Aksy) 사건은 잘라-아바드 지역의 보스피예크(Bospiek) 마을주민이 벌인 시위로서, 키르기스스탄의 영토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잔혹하게 시위를 탄압했으며,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당한 권리라고 믿고 있는 특정한 재화와 삶의 조건은 유지되지만, 그것을 실제로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재화와 삶의 조건은 과거(20세기 후반)보다 현저히 내려간 것을 느끼게 된다(특히 2003년과 2004년, 이는 가장 가까운 전년도 2002년과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과거에 비해 비율이 줄어 들었다. <표 6>). 즉,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 중에서도 ‘체감적 박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오른쪽 날개’는 한때 자신들이 가졌던 것을 잃는 데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이것에 대한 분노가 축적되게 된다. 이는 곧바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형성하게 되고, ‘후견주의’가 실행되는 씨족 정치에서 곧바로 자신의 지도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

결국 지도자인 아카예프 대통령은 2003년과 2004년의 지지그룹의 반발과 압력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자 2005년도에 다시 과거의 권력 분배 관계로 돌이키게 된다. 이렇게 되자 2000년대부터 권력 배분의 동등/균등화로 인해 정치적인 권력을 점차 손에 넣은 왼쪽 날개 씨족 그룹들도 과거에 얻었던 권력을 잃어버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의 ‘가치기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2000년대를 기준으로 실제로 권력을 누림으로 기준 자체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2005년 권력의 비율이 줄어들자 ‘가치능력’이 줄어들게 된다. 즉 실제로 획득 및 유지할 수 있는 권력과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오른쪽 날개’와 동일하게 ‘상대적 박탈감(체감적 박탈)’과 이에 따른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왼쪽 날개’의 본격적인 불만 표출과 아카예프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나게 된다. 또한 아카예프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오른쪽 날개’는 이미 2003년과 2004년의 시기로 인해 과거보다 권력이 줄어드는 박탈감과 씨족을 초월하고자 하는 아카예프의 생각이 들어간 ‘가족 정치’를 겪음으로 자신의 지도자인 아카예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만이 축적되게 된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은 높아지게 되었으며, 또 지도자인 아카예프는 자신을 지지하는 ‘오른쪽 날개’의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왼쪽 날개’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해 내지 못하였고, 결국 정치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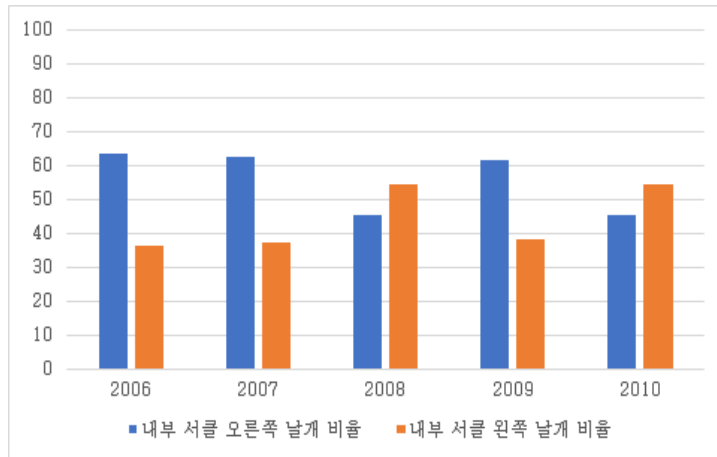
## (2)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시기

아스카르 아카예프가 2005년 정치변동으로 물러난 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력, 지역의 보증인 및 보호자 역할의 부재, 국가와 엘리트 간의 건설적인 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의 지도층에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남부 씨족 출신인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sup>18)</sup>가 대표로서 집권하게 된다. 그러나 2005년 혁명의 결과로 정권을 잡은 바키예프는 야당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씨족 정치를 근절하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통치 동안 씨족 정치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바키예프 통치 시기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내부 서클(inner circle)’ 데이터(<표 7>)에 따르면, 2005년 바키예프가 집권함으로써 남부 씨족 연합체인 ‘왼쪽 날개’의 힘이 많이 올라왔지만, 2006년과 2007년은 ‘오른쪽 날개’가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전제로서의 ‘오른쪽 날개’에 정치적, 경제적 우위가 있는 것과 동시에 2005년에 있었던 정치변동이 앞서 논하였듯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오른쪽 날개’가 아카예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왼쪽 날개’의 반정부 공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오른쪽 날개’는 아카예프를 끝까지 지지하지 않았기에(물론 과거보다는 힘과 영향력이 줄어들었지만) 정치적인 힘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었고,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기에 지속적인 우위를 나타낼 수 있었다.

18)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는 키르기스스탄의 남부 지역 중 하나인 마사단에서 태어났으며, ‘이즈킬릭’ 씨족 중 하나인 ‘테이잇(Тейит)’ 출신이다. 그는 잘라-아바드(Dzhalal-Abad) 주의 주지사 출신으로, 2000년 12월 21일부터 아카예프 정부의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2002년 반정부 시위인 Aksy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탄압에 대한 책임으로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이후, 바키예프는 2004년 9월 22일에 여당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민중운동(The People’s Movement of Kyrgyzstan)’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정부를 견제하였으며, 2005년에는 아카예프와 그의 ‘친족’들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반정부 활동을 벌여 3월에 ‘제1차 키르기스 혁명’을 진행하고 성공한다. 결국, 2005년 5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직무대행을 지내고, 2005년 8월 14일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키르기스스탄 제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또한 2009년 7월 23일 첫 번째 임기가 끝나고 재선되었지만, 2010년 ‘제2차 키르기스 혁명’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 망명하게 된다.

<표 7>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내부 서클(inner circle)’ 씨족 분포  
-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시기



▪ 제IV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방법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

하지만 바키예프 정권은 2008년부터 완전히 정부와 행정 기관을 장악하였으며, 그 결과 2008년도에는 키르기스스탄 내각의 역사에서 그동안 없었던 현상인 ‘왼쪽 날개’가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즉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오른쪽 날개’를 누르고 처음으로 역전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9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진다. 다시 한번 ‘오른쪽 날개’의 씨족 출신들의 비율이 내각에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카예프 시기에 정치권력 배분의 변화에 있었던 3가지 이유와 비슷하게 바키예프 시기에도 크게 2가지 이유, 2009년 재선과 ‘가족 정치’ 때문에 발생하였다.

2009년 7월 23일 바키예프는 다시 한번 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의 지속을 위해서는 아직 역량이 많이 있는 ‘오른쪽 날개’의 지지와 인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바키예프는 내각에서의 권력 배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재선에 대한 반대 씨족, 즉 ‘오른쪽 씨족’의 반대와 불만을 잠재웠다.

또한 이때부터 ‘가족 정치’가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졌다. 바키예프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지배 세력의 가장 중심으로 끌어들였으며(Болшинова 2015, 68),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더 쉽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족 정치’를 완성하려면, 반대파에 대한 반발을 억제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지지그룹 씨족들을 견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09년도의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씨족 비율은 다시 북부 씨족 연합체인 ‘오른쪽 날개’로 치우치게 된다. 이 결정은 당연히 바키예프를 지지하는 남부 씨족 연합체 ‘왼쪽 날개’의 불만과 반발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만을 중심으로 한 ‘가족 정치’로 인해 신뢰 상실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바키예프는 2010년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다시 ‘왼쪽 날개’의 비율을 높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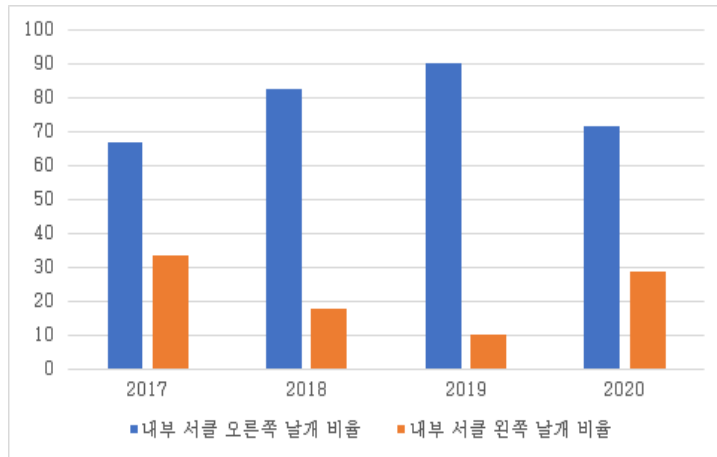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이 비율 조정으로 인해 ‘오른쪽 날개’ 씨족들은 자신들의 과거보다 그리고 자신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적/경제적인 역량이 매우 충분하였던 이들은 곧바로 바키예프를 끌어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고, 2010년 ‘제2차 키르기스스탄 혁명’을 통해 정치변동을 이끌어내게 된다. 즉, 이들도 아카예프 시기의 ‘왼쪽 날개’와 동일하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정치변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 (3) 소론바이 젠베코프(Sooronbay Jennbekov) 시기

쿠르만베크 바키예프가 ‘제2차 키르기스 혁명’으로 인해 물러난 뒤 형성된 과도정부 이후 ‘오른쪽 날개’ 출신의 아탐바예프(Atambayev)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된다. 아탐바예프의 임기가 끝난 이후, 남부의 도시이자 ‘왼쪽 날개’ 씨족들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오쉬(Osh)에서 태어났으나 ‘오른쪽 날개’의 ‘아지기네(Адигине)’ 씨족 안에 있는 ‘조루(Жору)’ 출신인 소론바이 젠베코프(Sooronbay Jennbekov)<sup>19)</sup>가 이어서 정권을 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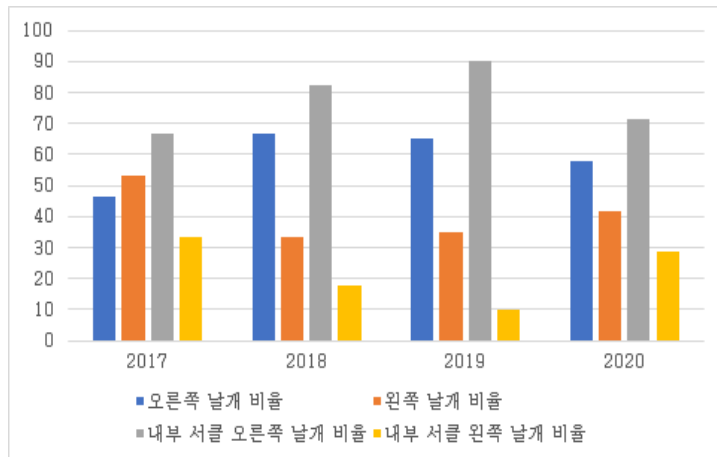
19) 소론바이 젠베코프(Sooronbay Jennbekov)는 1958년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주요 도시인 오쉬(Osh)에서 태어났으며, 1995년 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 활동을 시작하였다. 바키예프 시절 농수산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제4대 대통령인 아탐바예프(Atambayev) 정권에서는 오쉬 주의 주지사로 역임하였다. 이후 2016년 4월 13일부터 2017년 8월 22일까지 총리로 재직하다 2017년 대선에 출마, 당선되어 키르기스스탄 제5대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된다.

**<표 8>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내부 서클(inner circle)’ 씨족 분포**  
 - 소론바이 젠베코프(Sooronbay Jennbekov) 시기



▪ 제IV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방법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

**<표 9>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씨족 분포**  
 - 소론바이 젠베코프(Sooronbay Jeenbekov) 통치 시기



▪ 제IV장 제1절에서 논의한 방법을 바탕으로 저자가 구성

젠베코프 시기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의 ‘내부 서클’ 씨족 분포를 나타낸 데이터(<표 8>)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시기와 동일하게 ‘오른쪽

날개'의 지속적인 우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내부 서클'뿐만 아니라 '외부 서클'까지 다룬 <표 9>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2017년의 경우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왼쪽 날개'의 출신 장관들의 비율이 높지만,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내부 서클'에 한정하였을 때 '오른쪽 날개'가 매우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시기에서 '오른쪽 날개'가 지속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 논문의 첫 번째 전제인 과거의 유산으로 인한 북부 지역의 경제적/정치적 우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비율에서의 '왼쪽 날개'의 우세는 2017년의 키르기스스탄 정치적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017년의 정권 교체는 아탐바예프에서 젠베코프로 이루어졌다. 즉 '오른쪽 날개'에서 '오른쪽 날개'로 승계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승계 과정에서 '오른쪽 날개' 씨족들의 지속적인 권력 장악에 대한 '왼쪽 날개' 그룹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정치적으로 중요한 '내부 서클'에서의 비율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오른쪽 날개'가 지속해서 우세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권력의 승계는 키르기스스탄 정치 역사상 이례적으로 매우 평화적이며 안정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2018년에 정권이 안정되자 곧바로 전체적인 비율에서도 지도자 지지그룹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2018년). 또 2019년이 되자 과거의 아카예프 초창기 시기처럼 완전히 내부 서클에 한정해서는 '오른쪽 날개'가 완벽한 우세를 점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젠베코프는 매우 영리하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부 서클'에서는 자신의 지지 세력의 권력을 늘리는 반면, 전체적인 비율에서는 반대파인 '왼쪽 날개'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지만 전년보다 '왼쪽 날개'에게 권력을 더 주는 것을 보여준다(<표 9>, 2018-2019년). 결국,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만족시키고 반대파의 불만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궁극적으로 젠베코프 자신의 정치적 생존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나 <표 8>을 보면 '제3차 키르기스스탄 혁명'이 있었던 2020년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10년간 '오른쪽 날개'의 지도자들이 집권함으로써 지속적인 우세와 더불어 '내부 서클'에서 '오른쪽 날개'가 압도하는 형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벗어나, 비록 남부 출신의 지도자인 바키예

프가 통치하였던 때처럼 ‘왼쪽 날개’가 ‘오른쪽 날개’를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전년보다 18% 이상 ‘내부 서클’에서 ‘왼쪽 날개’의 비율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상황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탐바예프와 젠베코프는 같은 정치 그룹 출신이지만 매우 미묘한 관계 속에 있었다.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젠베코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오른쪽 날개’가 정통성을 유지하며 권력을 승계하였지만, 아탐바예프는 자신들의 최측근들과 함께 젠베코프를 압박하며 정치적인 간섭을 시도한다. 그리고 젠베코프도 이러한 간섭에 맞서 본래 전 대통령인 아탐바예프를 정치적으로나 다른 모든 것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젠베코프의 조치로 인해 아탐바예프는 2019년 ‘뇌물’, ‘불법적인 재산’, ‘직권남용’ 등으로 체포되고 2020년에 재판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은 2019년부터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젠베코프와 ‘왼쪽 날개’ 간의 협력과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추측된다. 젠베코프는 아탐바예프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오른쪽 날개’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들과 더불어 추가로 ‘왼쪽 날개’를 끌어들이었다는 것이다(여기서 이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대가가 바로, 2020년 ‘내부 서클’에서의 ‘왼쪽 날개’ 비율 상승이다).

이러한 행동은 앞서 아카예프 시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배 그룹 내에서의 권력 다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씨족 정치’의 특성상 내부 권력 다툼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시기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는 ‘비공식 정치’인 ‘씨족 정치’로 인해 매우 불안정했으며, 혼란 속에 존재하였다. 이 이유 외에 ‘왼쪽 씨족’의 내각에서의 비율 상승 뒤에는 아탐바예프 집권 시기부터 지속되는 ‘오른쪽 날개’의 통치에 대한 이들의 불만 축적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유도 존재한다. 아카예프 때의 ‘왼쪽 날개’ 씨족 연합체의 역량과는 달리 이미 이 시기에는 이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충분히 있었기에 지도자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고려해야만 하였다. 덧붙여 본 논문의 두 번째 주제인, ‘민주화, 민주주의 지향’은 비록 이 시기에 들어서는 힘을 많이 잃었지만, 그럼에도 정치적 흐름의 기저에는 존재하여 권력 비율 조절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서

도 이러한 권력의 배분들을 통해서 ‘오른쪽 날개’ 씨족 연합체가 이전에 살펴본 시기들과 동일하게 ‘상대적 박탈감(체감적 박탈)’을 느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치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젠베코프의 통치 시기는 선거를 통해 정상적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오른쪽 날개’가 그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의 정치변동은 다른 무엇보다 ‘오른쪽 날개’ 내에서의 권력 줄다리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부 씨족 연합체는 전 대통령인 아탐바예프를 지지하는 세력과 새롭게 정권을 잡은 젠베코프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큰 틀에서 중립을 지키는 그룹들로 크게 분리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젠베코프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키르기스스탄 내각에서 ‘왼쪽 날개’ 비율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며, 결정적으로 2020년에 과감하게 ‘내부 서클’에서 권력 비율을 재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변동을 통해 아탐바예프를 지지하는 충성과 및 지금까지 중립을 지키던 ‘오른쪽 날개’의 중립 지지층들은 과거보다 자신들의 권력이 줄어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의 ‘가치기대’는 아탐바예프가 정권을 안정화한 2013년부터 이때까지 자신들 출신의 지도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젠베코프 시기 전체적인 비율에서의 ‘왼쪽 날개’의 상승은 실질적인 권력과 행정에 큰 영향이 없었기에 넘어갔지만 2020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서클’에서 ‘왼쪽 날개’의 비율이 상승하자 곧바로 실제로 획득할 수 있는 권력과 이익인 ‘가치능력’이 줄어들게 되어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박탈감은 결국 현재의 지도자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게 되고 젠베코프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취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정치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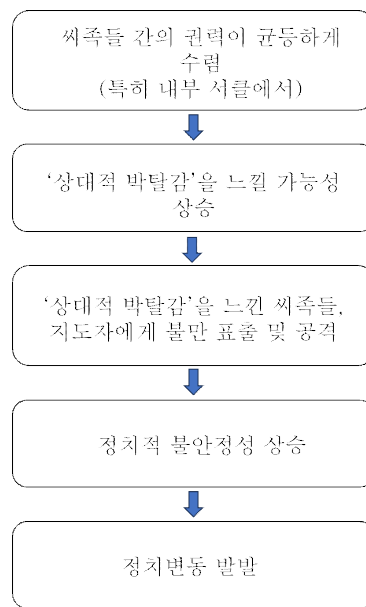
### 3.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 메커니즘

앞서 살펴본 세 시기에서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은 모두 동일한 일련의 과정[‘권력 배분의 균등(또는 역전)’과 ‘과거로의 권력 배분으로의 회귀’] 이후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지도자와 씨족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과약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메커니즘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다. 지도자가 씨족들에게 권력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특히 내부 서클에서) 씨족들 간의 권력이 비슷하게(균등하게) 수렴될수록 한때 가졌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분노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지도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씨족들은 지도자에게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며,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변동이 일어나게 된다(<그림 2>).

<그림 2>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메커니즘



결국,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있었던 세 번의 격동적인 정치변동은 단순히 ‘민주화’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씨족’이라는 요소가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메커니즘 자체가 ‘씨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변동에 대해 기존의 개념인 ‘민주화 과정’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씨족 중심의 정치적 과정이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정치변동에 매우 큰 요인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키르기스스탄의 ‘씨족 정치’를 통해 논의 및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 엘리트 생존’ 개념하에 지도자의 가장 큰 목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전제를 하고, 키르기스스탄의 내각에 내부 서클과 외부 서클 개념을 적용하여 경험적 자료를 생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씨족’ 또는 ‘씨족 그룹’이 상당한 정치 및 행정 권한을 갖는 자리까지 확장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엘리트들(씨족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정치적 변동까지 이끌어가게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거어의 ‘상대적 박탈이론’을 적용하여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연구들의 대표적인 이론적 틀인 ‘민주화’라는 틀만으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정치변동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과 더불어 ‘씨족’이라는 이 지역만의 매우 특수한 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즉, 키르기스스탄 ‘씨족’에 바탕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연구들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다른 무엇보다 서방의 개입과 도움을 오직 ‘긍정적’으로만 검토하기에, 키르기스스탄 내부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다양한 정치 행위자들 간의 줄다리기를 포착하지 못하고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을 ‘민주화 혁명’이라는 틀로만 보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국제 정치(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줄다리기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제시한 연구 또한 내부적인 요인, 특히 이 지역의 특성인 ‘비공식 정치’ 및 ‘씨족’을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보인다. 즉,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들은 다른 무엇보다, 이 지역의 결정적 요인인 ‘씨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민주화 혁명’은 일어났지만 정작 민주주의 지수는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역설을 나타내었고, 따라서 실제 현실 반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씨족’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비공식 정치, ‘씨족 정치’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있었던 정치변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특징인 씨족들 간의 정치적 다툼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서 내부적인 요인이 매우 결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한 키르기스스탄과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씨족’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며,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논증하였다. 이것은 결국, 기존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논의가 부족하고, 미미한 영향력으로 분류되어 상세하게 연구되지 않은 ‘비공식 정치’ 및 ‘씨족’을 본 연구에서 ‘정치 엘리트 생존’ 개념에 기초하여 경험적 자료를 구성 및 분석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에서, ‘비공식 정치’ 및 ‘씨족’의 영향력에 대한 재고찰과 더불어 새로운 관점/시각에서 이 지역의 정치변동 이해를 제시하는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험적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 정치변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은 ‘씨족’에 기반을 두며, 내각에서 (특히 내부 서클에서) 씨족들 간의 권력이 비슷하게(균등하게) 수렴될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바탕으로 씨족들은 지도자에게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심화될 경우 정치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씨족들의 권력 비율을 불가피하게 조절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씨족들은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내부 서클’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과거보다 줄어들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공격을 야기하게 되고,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정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지도자를 지지하는 씨족들의 역량이 부족하거나(역사/사회 등의 요인들로 실질적인 힘이 부족), 내부적인 분쟁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또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 상실(지도자의 ‘가족 정치’나 ‘씨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펼쳐진 정책으로 권력 배분의 요동) 등과 같은 이유로 지도자를 도와주지 않을 때 반대파의 공격은 성공하게 되고 정치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권력 분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즉 씨족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때 ‘후견자-후견인’이라는 기본적인 씨족 네트워크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변동이 일어나게 되며 이것이 곧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정치변동의 메커니즘이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한계가 있지만 추측해본다면,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미래에서 ‘씨족’이라는 요소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주주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먼저 ‘씨족’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근대적 요소가 아니라 정체성, 민족성, 문화, 가치관 등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논문에서 논증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변동 메커니즘을 보면 결국 ‘씨족 정치’가 그 배경에서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해서 작동하고 있기에 완전히 ‘씨족’이라는 요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정치의 미래에서도 ‘씨족’이라는 요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 ‘민주적’ 요소가 나타나 점차 사라진다고 해도, 오히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더욱 고도화된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라는 매우 특별한 지역을 이해하려면, ‘씨족’이라는 요인을 비롯하여 그 외 다양한 요인들(국제정치경제,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사회적/문화적 요인 등)이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경험적 자료를 통한 증명처럼, 더 다양한 분석 방법과 확장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나아가 데이터의 범위를 키르기스스탄에서 중앙아시아로 넓히며 보다 더 세부적인 사료와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씨족 정치’에서 정치변동 메커니즘이 더 상세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봉구 (2009a). “유라시아 읽기: 현대 중앙아시아의 ‘씨족 정치(clan politics)’: 키르기스스탄의 사례.” 『e-Eurasia』. 제11권, pp. 49-53.
- \_\_\_\_\_ (2009b). “세계로부터 천산(天山)으로: 키르기스스탄 대외정책 정향의 변화.” 『슬라브연구』. 제25권. 제1호, pp. 171-204.
- 구자정 (2011). “소비에트 연방은 왜 해체되었는가?: 소련의 ‘이중 체제’와 ‘민족 창조 정책’을 통해서 본 소련 해체 문제의 재고.” 『역사학보』. 제210집, pp. 357-405.
- 권현중 (2019). “소연방 해체가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탈소비에트화 및 중앙아시아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제23권. 제2호, pp. 95-133.
- 박상남 (2007).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변동: 정치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26권. 제1호, pp. 265-292.
- \_\_\_\_\_ (2011). “권위주의 국가 엘리트 구조의 변화와 작동원리: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후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4권. 제4호, pp. 165-187.
- 박태성 (2007).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과 주변국의 반응.” 『동유럽발칸학』. 제9권. 제2호, pp. 317-348.
- 송승중 (2017).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이론과 실제.” 『한국군사학논집』. 제73권. 제1호, pp. 63-94.
- 양정훈 (2011). “키르기스스탄의 국민혁명: 바키예프 정권 전·후의 정치변동.”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5권. 제2호, pp. 238-267.
- 엄구호 (2009).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씨족 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제3호, pp. 181-220.
- 우평균 (2017). “러시아의 미래전 대비 전략: 네트워크 중심전과 시사점.” 『중소연구』. 제41권. 제3호, pp. 213-249.
- 윤익중 (2010).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2010년 정치변동과 러시아 연방.” 『슬라브학보』. 제25권. 제4호, pp. 257-289.
- 이경원 (2021).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키르기스스탄 시민교육에 대한 일고찰.” 『초등도덕교육』. 제75호, pp. 233-264.
- 이영형 (2021). “국내 중앙아시아 관련 학위논문 편차 연구: 연구자 국적, 논문수준, 주제별 분류.” 『한국시베리아연구』. 제25권. 제3호, pp. 111-146.
- 임경훈 (2003). “비교 민주화 이행론과 러시아의 탈공산주의 이행.” 『국제정치논총』.

- 제43권. 제3호, pp. 477-494.
-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진덕규 (1997). 『현대정치학』. 학문과 사상사.
- 황성우 (2010).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과 동서 패권주의 가능성 연구.” 『국제지역 연구』. 제14권. 제2호, pp. 477-498.
- Anderson, John (1999). *Kyrgyzstan : Central Asia's Island of Democracy*. Amsterdam: Taylor & Francis.
- Clionadh, Raleigh and Daniel Wigmore-Shepherd (2020). “Elite Coalitions and Power Balance across African Regimes: Introducing the African Cabinet and Political Elite Data Project (ACPED).” *Ethnopolitics*. No. 1, pp. 22-47.
- Collins, Kathleen (2004). “The Logic of Clan Politics: Evidence from the Central Asian Trajectories.” *World Politics*. Vol. 56. No. 2, pp. 224-261.
- \_\_\_\_\_ (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Kyrgyzstan’s Latest Revolu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22. No. 3, pp. 150-164.
- de Mesquita, Bruce Bueno et al. (2002). “Political Institutions, Policy Choice and the Survival of Leader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2. No. 4, pp. 559-590.
- de Mesquita, Bruce Bueno et al. (2005).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The MIT Press.
- Francois, Patrick et al. (2015). “How is Power Shared in Africa?” *Econometrica*. Vol. 83. No. 2, pp. 465-503.
- Hale, Henry E. (2005). “Regime Cycles: Democracy, Autocracy, and Revolution in Post-Soviet Eurasia.” *World Politics*. Vol. 58. No. 1, pp. 133-165.
- Jones, Kevin D. (2010). *A Culture of Protests: The Government Overthrow in the Kyrgyz Republic in 2010*. College Park, MD: Center for International & Security Studies. U. Maryland.
- Juraev, Shairbek (2008). “Kyrgyz Democracy? The Tulip Revolution and Beyond.” *Central Asian Survey*. Vol. 27. pp. 253-264.
- Kopstein, Jeffrey S. and David A. Reilly (2000). “Geographic Diffus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communist World.” *World Politics*. Vol. 53. No. 1, pp. 1-37.
- Kreuzer, Peter (2005). *Politics Political Clans and Violence in the Southern*

- Philippines*. Frankfurt am Main: Peace Research Institute Frankfurt.
- Lewis, David (2008). "The Dynamics of Regime Chan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in the 'Tulip Revolution'." *Central Asian Survey*. Vol. 27. Nos. 3-4, pp. 265-277.
- Lindemann, Stefan (2011). "The Ethnic Politics of Coup Avoidance: Evidence from Zambia and Uganda." *Africa Spectrum*. Vol. 46. No. 2, pp. 3-41.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2). "Political Identities and Electoral Sequences: Spain, the Soviet Union, and Yugoslavia." *Daedalus*. Vol. 121. No. 2, pp. 123-139.
- McFaul, Michael (2002). "The Fourth Wave of Democracy and Dictatorship: Noncooperative Transitions in the Postcommunist World." *World Politics*. Vol. 54. No. 2, pp. 212 - 244.
- Mosca, Gaetano (1939). *The Ruling Class*. New-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nitz, Scott (2006). "What Really Happened in Kyrgyzstan?" *Journal of Democracy*. Vol. 17. No. 2, pp. 132-146.
- Raleigh, Clionadh and Daniel Wignmore-Shephard (2020). "Elite Coalitions and Power Balance across African Regimes: Introducing the African Cabinet and Political Elite Data Project (ACPED)." *Ethnopolitics*. Vol. 21. No. 1, pp. 22-47.
- Schmitter, Philippe C. and Terry Lynn Karl (1994). "The Conceptual Travels of Transitologists and Consolidologists: How Far to the East Should They Attempt to Go?" *Slavic Review*. Vol. 53. No. 1, pp. 173-185.
- Way, Lucan A. and Steven Levitsky (2007). "Linkage, Leverage, and the Post-Communist Divid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And Cultures*. Vol. 21. No. 1, pp. 48-66.
- \_\_\_\_\_. (2010).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Асанканов А. А., О. И. Брусина и А. З. Жапаров (2016). *КЫРГЫЗЫ*. Ин-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им Н.Н. Миклухо-Маклая РАН, Ин-т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Н КР. - М.: Наука.
- Болшонова, А.Б. (2013). "Формирование Кыргыз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лана

- Середины ХХ – Начала ХХІ вв.” *Вестник КРСУ*. Vol. 13. No. 6, pp. 3-5.
- \_\_\_\_\_. (2015). “Политические кланы Кыргызстан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Vol. 18. Nos. 3-4, pp. 57-72.
- Бородин, Е. (2013). “Клановый характер устройства кирги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оссия и мусульманский мир*. No. 5, pp. 48-59.
- Воронин, С.А. и Е.А. Бакина (2019). “Клановая иерархия как основа ‘тюльпановой революции’ в Кыргызстане.”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в. Серия: Всеобщая история*. Vol. 11. No. 2, pp. 161-171.
- Егоров, В.Г. и Д.А. Рекк (2020). “Кланы в Актуальн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цессе Постсоветских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pp. 36-47.
- Комкова, С. С. (2018) “Политические элиты в государ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бщие черты и коренные различия.” *Архонт*. No. 2, pp. 90-97.
- Ханин В. (2000). “Кыргызстан: этнический плюрализм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конфликты.”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No. 3, pp. 81-85.

## 2. 기타

- African Cabinet and Political Elite Data Project (ACPED). <https://versus-erc.com/data-acped>. (2023년 7월 25일 검색)
- AKIpress. <https://who.ca-news.org/>. (2023년 8월 1일 검색)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2년 EIU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EIU report Democracy Index 2022).”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2/>. (2023년 7월 20일 검색)
- Freedom House. “NIT 2022년 보고서(Nations in Transit 2022).” [www.freedomhouse.org](http://www.freedomhouse.org). (2023년 1월 30일 검색)
- \_\_\_\_\_. “NIT 지수 2012년 보고서(Nations in Transit 2012).” [www.freedomhouse.org](http://www.freedomhouse.org). (2023년 1월 30일 검색)
- Rulers. <https://www.rulers.org/>. (2023년 8월 14일 검색)
- Кыргыз санжырасы. <https://sanjyra.net/>. (2023년 8월 7일 검색)
-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Министрлер Кабинети. <https://www.gov.kg/ky>. (2023년 7월 20일 검색)

172 아태연구 제30권 제4호 (2023)

ЦентрАзия. <https://centrasia.org/person.php>. (2023년 8월 11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3년 10월 25일 |

| 논문심사일 : 2023년 11월 28일 |

|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9일 |

| ABSTRACT |

**Analysis of Political Change Mechanism  
in Kyrgyzstan:  
Focusing on Clan Politics**

**Seongin Moon**

(Dept. of Europ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Is the 'revolution' in Kyrgyzstan 'democratic' as commonly understood? Isn't it 'packaged' and presented by images or propagand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analyze the mechanism of political change here based on 'clan',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is region.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of "political survival" of Bueno de Mesquita among the concepts of "political elite survival" was presented as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the Kyrgyz cabinet was set as the target of analysis. And data was organized using the 'a Who is Who' of Kyrgyzstan and the concepts of "inner" and "outer" circles, which uses to evaluate whether leaders implement a policy of inclusion or exclusion to the posts that hold significant political or administrative power. In addition, the political changes in Kyrgyzstan that occur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leaders and clans were discussed based on Gurr's concept of "relative deprivation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litical change in Kyrgyzstan is based on 'clan' and the mechanism is as follows. When power among clans converges similarly(equally) in the cabinet (especially in the "inner circle"), the clans feel 'relative deprivation' and express dissatisfaction and anger towards the leader. This results in political instability, and if this intensifies, political changes will occur.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t brings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transition in Kyrgyzstan, which has been lacking in the conventional wisdom of 'democratization' alone, by examining 'clan' and empirical data. And this paper suggests that 'clan politics'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future here.

- Key words: Kyrgyzstan, Political Change, Clan, Clan Politics, Relative Deprivation